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립 “팽팽”

산업계, 2020년 목표치 21% 감축 ... 환경단체는 28%p 더 요구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놓고 산업계와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9월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경제단체들이 개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대토론회>에서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기업의 65.6%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21%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목표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36.6%가 12월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 결과를 확인한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BAU 대비 감축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가예산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적어도 2005년 대비 2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2005년 대비 8% 증가를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 무려 28%p의 격차가 나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BAU 대비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국내기업의 현실에 맞게 감축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축방식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각 부문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9>